사찰을 수익자로 지정이 가능한 Heungkuk 흥국생명
49재 보험 & 다비 보험
상담 문의 1522-1543

#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87호 HYUNBULNEWS.COM 2026년 7월 22일(음력 6월 9일) 수요일 / 불기 2570년

## 전국 사찰 '출가학교' 미래 승가 산실 되다

**조계종, 상반기 핵심 종책 추진**
**참가자 출가 전환율 20% 달해**
**사찰 특색 살린 프로그램 눈길**
**하반기 범어사 · 신흥사 등 개설**

하성미 · 박지운 기자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핵심 종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단기출가학교가 올해 상반기 전국 교구본사를 중심으로 본격 운영되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참가자 중 출가를 결심한 이들이 잇따르면서 '출가 인재 양성 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수덕사와 선운사에서 첫걸음을 뗀 단기출가학교는 올해 동화사와 진관사, 운문사에 새롭게 개설됐다. 여기에 월정사와 수덕사, 선운사, 봉녕사, 붓다선원 등도 꾸준히 출가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교구본사와 수행도량이 거점이 돼 출가 희망자를 발굴하고, 체험 이후 상담과 멘토링으로 실제 출가까지 연결하는 구조를 갖춰가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다.

동화사 제1기 무문 단기출가학교에서는 수료생 15명 가운데 2명이, 거창 붓다선원 제4기 단기출가학교에서는 13명의 수료생 가운데 2명이 정식 출가를 발원했다. 운문사 제1기 바라밀출가학교에서도 수료생 13명 중 3명이 출가, 1명이 은퇴출가를 서원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참가자들의 잠재 출가 전환율이 약 20%에 달해 출가학교의 실효성을 입증했다.

사찰별 수행 전통과 특성을 살린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점도 주목된다.

월정사는 2004년부터 이어온 출가학교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달 가량의 장기 과정으로 깊이 있는 수행을 제공한다. 수덕사는 덕숭총림의 선풍을 바탕으로 보살행학교를 운영하며 참선과 삼보일배, 관음정근 등 선수행을 중심에 뒀다.

운문사는 비구니 수행공동체의 전통을 살린 바라밀출가학교를 통해 여성 수행자 양성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봉녕사는 차명상과 요가선명상 등 현대적 치유 프로그램을 접목하고 있다.

이처럼 각 사찰은 '출가학교'라는 이름 아래 선과 계율, 명상, 사찰음식, 차명상 등 저마다의 수행 전통을 살린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차별화를 시도했다.

참가자의 폭도 크게 넓어졌다. 과거에는 불자들이 수행 체험을 위해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삶의 방향을 고민하거나 직장과 인간관계에서 지친 청년, 은퇴 이후 새로운 삶을 모색하는 중장년층 등 다양한 계층이 출가학교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하반기에는 출가학교가 더욱 확대된다. 수덕사는 오는 10월 27일부터 11월 5일까지 제3기 보살행학교를 운영할 예정이며, 선운사도 10월 23일부터 11월 1일까지 제3기 단기출가학교를 개최한다. 상반기 첫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친 동화사도 제2기 출가학교를 준비하고 있으며, 범어사와 신흥사도 새롭게 출가학교를 개설해 영남권과 강원권까지 출가 거점을 확대할 계획이다.

범어사 단기출가학교 개설을 준비하고 있는 석산 스님(범어사 선문화관장)은 "출가자가 급격히 감소하는 시대에 불교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참가자들이 불교를 마음 깊이 느끼고 신심을 낼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교부는 상반기 성과를 바탕으로 출가학교를 '전(前) 출가 인큐베이팅 시스템'으로 구축하기 위해 △운영사찰 간 교육 콘텐츠 공유 △표준 운영지침 마련 △지도법사 교육 △참가자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포교부는 "더 많은 교구본사에서 권역별 출가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할 계획"이라며 "출가를 고민하는 이들이 가까운 곳에서 출가를 체험하고 수행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청정수로 연꽃 점안…조계사 연꽃축제 개막** 서울 조계사(주지 담화 스님)가 연꽃으로 장엄됐다. 조계사는 7월 10일 '제12회 조계사 연꽃축제 점안 의식'을 봉행하고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 조계사는 올해 축제를 위해 일주문부터 앞마당까지 400여 개의 연꽃 수조로 도량을 장엄해 시민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사진은 주지 담화 스님과 사중 스님들이 연꽃에 청정수를 뿌리며 점안 의식을 하는 모습. 글 · 사진=박지운 기자

## 서울국제명상엑스포, 더 풍성해져 돌아왔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서울국제명상엑스포가 더욱 풍성해져 돌아왔다. 11개 국가가 참여하는 세계명상부스부터 국내외 명상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는 국제 콘퍼런스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종학연구소(소장 정도 스님)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제7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는 '2026 명상, 함께 깨어나다'를 주제로 체험·학술·교육·문화 4개 분야에서 다채로운 명상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체험파트인 명상체험부스와 세계명상부스는 8월 22일부터 8월 23일까지 학여울역 세텍(SETEC) 제2전시실에서 진행된다. 명상체험부스에는 총 24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될 예정이며, 참가자들은 호흡명상을 비롯해 걷기·몸 알아차림·마음챙김·명상상담·뇌파 활용 명상·선명상 등 자신의 관심과 취향에 맞는 명상을 전문가의 지도 아래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세계명상부스에는 11개국이 참가해, 각국의 다양한 명상 전통과 현대 명상 실천법을 소개하고 지도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국내외의 전통 명상과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다양한 명상법을 직접 체험하며 자신에게 맞는 마음돌봄 방법을 발견하고, 서로 다른 문화가 명상을 통해 연결되는 '함께 깨어나다'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어 기대를 모은다.

**'명상, 함께 깨어나다' 주제 진행**
**8월 22~23일 명상체험부스 운영**
**9월 17~18일 동국대서 콘퍼런스**

학술파트의 '명상 콘퍼런스'는 9월 17일부터 9월 18일까지 이틀간 동국대 본관 남산홀에서 개최되며 국내외 명상 전문가들의 강연과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첫째 날에는 '기술과학시대의 선명상'을 주제로 △동국대 석좌교수 수불 스님(안국선원장) △미나스 카파토스 채프먼대 교수 △사사키 시즈카 하나노조대학 명예교수 △유기준 상지대 명예교수가 참여해 기술과 과학이 일상의 변화를 이끄는 현대사회 속에서 선명상이 지닌 성찰의 의미와 실천적 가치를 다양한 관점에서 조명할 예정이다.

콘퍼런스 둘째 날에는 '선명상의 웰니스적 가치'를 주제로 △재단법인 행복마을 이사장 용타 스님 △라샤드 알리에프 아제르바이잔 ADA대학교 조교수 겸 혁신센터장 △툽텐 텐다르 미국 로드아일랜드대학 비폭력 서머 인스티튜트 원장 △안희영 한국MBSR 마음챙김 연구소장이 명상의 실천적 가치와 현대적 활용 방안을 소개한다.

교육파트에서는 '불교명상 프로그램 개발' 및 '명상 루틴 콘텐츠'가 진행된다. 올해 7월부터 진행되는 불교명상 프로그램 개발은 3년 연구 사업의 마지막 단계를 맞이했으며, 1년차에는 KCI 등재 논문으로 연구 성과를 발표했고 2년차에는 선명상의 정책적 활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올해는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뇌파 측정 사전·사후 변화를 분석해 논문으로 정리하고, '행복한 깨어남' 3단계 불교명상 교육 프로그램을 완성할 계획이다.

명상 루틴 콘텐츠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누구나 잠시 멈추어 자신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도록, 앉기·서기·걷기 등 일상에서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3~5분 내외의 짧은 영상으로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문화파트에서는 선명상 콘서트가 진행된다. 선명상 콘서트는 9월 18일 오후 4시 30분부터 동국대 본관 남산홀에서 개최되며, 전 연령층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퓨전 공연과 현대적 명상 음악을 선보인다.

제7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의 모든 프로그램은 공식 홈페이지(https://mind.dongguk.edu)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명상체험부스 오프닝과 명상 콘퍼런스, 선명상 콘서트는 서울국제명상엑스포 공식 유튜브 채널과 BBS불교방송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된다.

신중일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기획 ② 총무원장 선거의 역사 5면
관심이 신행으로 – ⑤ 소년출가가 늘고 있다 13면

지장보살 영옥함




지장보살 좌대에 영옥으로 봉안

사찰 납골의 혁신

• 유골이 보석화 되어 깨끗하고 변질이 없습니다.
• 납골의 곰팡이, 변질, 벌레 발생 근본적 해결함.
• 친숙한 사리 형상으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모시는 환경과 장소에 구속 받지 않고 경제적
• 관리가 어려워진 산소 정리 후 개장 유골도 가능
• 변질되어 악취 발생 및 물이 찬 유골도 가능함
• 고인별로 영옥의 색상이 다르게 발현됨
• 22년간 기술을 발전시켜 고인 고유의 아름다운
• 색상을 발현시키는 기술이 검증된 원조 회사
• 생성 소요 시간 60분 소요
• 납골을 모셔오고 생성 후 모셔 드리는 서비스 있음
• 영옥의 색상과 량은 고인 별로 다르게 발현됩니다.

깨끗한 오리지널 유골보석

직통상담 010-5235-2677
홈페이지 www.holytec.com

깨끗한 오리지널 유골보석
영옥(靈玉) 사리

SINCE 2002
오리지널 유골보석 전문업체
주식회사 본 향

NAVER 영옥사리 검색